

신라 애장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 지향

안 주 흥*

- I. 머리말
- II. 천자 7묘의 廟數 논쟁과 別立의 의미
- III.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2묘와 천자 지향
- IV. 皇祖, 皇考와 천자 지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애장왕대의 종묘개편에 반영된 지위 관념을 분석한 글이다. 애장왕대의 개편은 『예기정의』와 대력 14년(779)의 묘의를 참고하여 王肅의 설에 따라, 제후 5묘로서 二昭二穆의 친묘 4를 부묘하고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불훼묘를 소목의 수에서 별립한 것이었다. 두 대왕은 여전히 종묘에 모셔진 것이므로, 두 대왕의 별립을 근거로 원성왕계의 확립을 말하기 어렵다.

해공왕대의 개편으로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大功德으로 대대로 허물지 않는 宗이 되었다. 이는 천자가 功德에 따라 祖宗을 세운 것과 같다. 신문왕 12년(692)의 태종 묘호 논쟁은 조종의

* 경북대학교 강사 / ajhknu@naver.com

호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태종호에 반영된 천자의식은 혜공왕대의 개편으로 문무왕까지 확대되었다. 조종은 시조와 같은 불훼묘였는데, 이는 시조와 같은 공통의 조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원성왕은 ‘조종의 만파식적’을 계승할 수 있었고, 애장왕은 두 대왕을 계속 종묘에 모실 수 있었다.

皇祖, 皇考의 皇은 황제, 皇家를 의미한다. 이는 漢 宣帝가 皇考廟를 설립한 것과 唐 중종이 신룡 원년(705)에 종묘를 복원하며 皇家의 태묘, 皇考, 皇兄이라 표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애장왕대에 친묘 4를 부묘한 것은 증조 할아버지인 원성왕과 함께 할아버지인 혜충대왕을 계속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섭정인 김언승은 개편을 통해 원성왕이 구축한 황가가 황조 혜충대왕과 황고 소성대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결국 애장왕대의 개편은 원성왕계라는 왕족의 확립이자 인계계라는 근친 왕족의 분지화를 꾀한 것이라 하겠다.

◆ 주제어

애장왕, 오묘제, 천자 7묘, 태종, 황고, 황조

I. 머리말

애장왕은 즉위 2년(801) 2월에 太宗大王과 文武大王의 2묘를 別立하고, 始祖大王, 高祖 明德大王, 曾祖 元聖大王, 皇祖 惠忠大王, 皇考 昭聖大王으로 五廟를 삼았다.¹⁾ 종묘는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天子 혹은 제후의 지위에 따라 廟數가 정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창업자와 극히 제한된 수의 통치자만이 入廟의 자격을 갖는 배타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廟數나 迭毀의 원칙은 현실의 권력 관계에 따라 변동되었다.²⁾ 왕은 종묘의 묘수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遷廟와 祔廟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계보를 확정하였다.

애장왕 2년의 기사에도 이러한 지위 관념과 계보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계보 관념에 관해서는 대체로 원성왕계가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신라는 해공왕대에 神主의 구성방법을 개편하여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대대로 허물지 않는 宗으로 삼고 아울러 親廟 2를 부묘하였다.³⁾ 친묘 2는 祖考이므로, 애장왕은 증조할아버지인 원성왕의 신주를 천묘해야 했다고 한다. 이를 막고자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별립하고, 직계 4친을 부묘하는 형태로 개편하였다는 것이다. 원성왕의 부묘를 통해 원성왕계라는 계보 관념이 확립되었다고 본다.⁴⁾

1) 春二月 謁始祖廟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及王高祖明德大王曾祖元聖大王皇祖惠忠大王皇考昭聖大王爲五廟. 『三國史記』 권10 신라본기10 애장왕 2년.

2) 신성곤, 「종묘 제도의 탄생」, 『동아시아문화연구』 57, 2014, 42~44쪽.

3)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 平百濟高句麗有大功德 並爲世世不毀之宗 兼親廟二爲五廟.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4)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역사학보』 85, 1980 : 『신라골품제사 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154쪽; 최병헌, 「신라 하대사회의 동요」,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1, 436쪽; 濱田耕策,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學生社, 1982 :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48~49쪽;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 1997 :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197~198쪽;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2008, 213쪽; 이문기, 「신라 하대 사회의 성립과 전개」,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59~60쪽. 다만 원성왕계 내부의 변동에 관해서는 연구자 간에 견해차가 있다.

그러나 지위 관념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禮記』王制에 따르면 천자는 7묘로 三昭三穆과 태조의 묘로 7이 되고, 제후는 5묘로 二昭二穆과 태조의 묘로 5가 된다고 한다.⁵⁾ 지위에 따라 묘수가 다른 것이다. 애장왕대에 개편된 묘수는 별립된 두 대왕의 신주를 묘수에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제후 5묘 혹은 천자 7묘로 본다.

과연 애장왕대 개편된 종묘에는 어떤 지위 관념이 반영된 것일까? 근래 여러 연구 성과에서 신라가 一統三韓의 천하관을 바탕으로 하여 일종의 황제제식을 가졌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⁶⁾ 특히 하대에는 大王호를 비롯하여 照文皇太后(「葛項寺石塔記」), 文懿皇后(「開仙寺石燈記」) 등 황제, 황족 관련 자료들이 금석문에 보이며, 이를 근거로 당시의 왕실이 황제·황족적 지위와 의식을 가졌다는 해석이 있다.⁷⁾ 최근에는 애장왕대의 책봉의례와 대일외교를 분석하여 신라가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는 해석도 제시되었다.⁸⁾ 따라서 애장왕대의 종묘 개편도 지위 관념 정확히는 천자 지향이라는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묘수 즉 종묘에 반영된 지위 관념은 종묘개편에 대한 廟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애장왕 2년의 기록과 같이 개편된 신주들만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신주의 구성 방법과 그에 대한 표기는 묘의의 결과물이므로, 역으로 이를 통해 지위

5) 天子七廟 三昭三穆與太祖之廟而七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 『예기』 권5 왕제.

6) 전덕재, 「신라의 대외인식과 천하관」, 『역사문화연구』 20, 2004.6, 235~238쪽; 김창겸,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12, 221~227쪽; 김창석, 「통일신라의 천하관과 대일인식」, 『역사와 현실』 56, 2005, 156~158쪽;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12, 64~75쪽; 주보돈, 「신라의 동경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0, 2015, 201~220쪽. 다만 당과 대등한 관계였는가의 여부는 연구자 간에 차이가 있고, 같은 글에서도 시기에 따라 혹은 대상에 따라 달리 보기도 한다.

7) 김창겸, 「신라 원성왕계 왕의 황제·황족적 지위와 골품 초월화」, 『백산학보』 52, 1999 :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90~96쪽.

8) 채미하, 「신라의 책봉의례와 그 기능」, 『사학연구』 127, 2017.9, 76~90쪽; 「애장왕·헌강왕대의 대일외교와 그 활용」, 『신라사학보』 44, 2018.12, 153~165쪽.

관념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라는 唐의 제도를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수용하였으므로, 당의 묘제 변천과 묘의를 검토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중국의 천자 7묘에 대한 역대의 묘의 즉 묘수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애장왕대의 묘수를 파악하는데 관건이었던 두 대왕의 ‘별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는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불훼묘를 통해 천자 지향을 살펴볼 것이다. 두 대왕은 허물지 않는 ‘宗’이 되었으므로, 천자 7묘에서 祖宗의 호가 가지는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IV장에서는 ‘皇祖’, ‘皇考’라는 표현에 반영된 천자 지향을 검토할 것이다. 이 표현은 애장왕 2년(801)의 기사가 유일하므로, 중국의 경우를 분석하여 황자에 내포된 황제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일련의 작업을 통해 애장왕대의 종묘에 반영된 지위 관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당시 신라 왕실의 계보 관념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신라의 종묘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천자 7묘의 廟數 논쟁과 別立의 의미

『예기』에 따르면 종묘는 천자 7묘, 제후 5묘와 같이 지위에 따라 정해진 廟數가 있다. 애장왕 2년(801)에 개편된 종묘의 묘수는 연구자에 따라 제후 5묘로 보거나 천자 7묘로 본다. 제후 5묘설은 해당 기사에 ‘五廟’를 삼았다는 표현을 중시하여,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묘가 종묘에서 제외되었다고 본다. 즉 묘수에서 제외된 것이다. 반면 천자 7묘설은 두 대왕의 묘를 묘수에 포함하였다. 그에 따르면 唐은 大曆 14년(779)에 후한의 경학자인 鄭玄의 해석을 수용하여 시조와 두 개의 不毀廟, 직계 4친으로 천자 7묘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신라인들은 정현의 해석을 실은 『예기정의』를 통해 이러한 해석을 알게 되었으며, 혜공왕대에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불훼묘로 세우고, 애장왕대에 직계 4친을 부묘하여

결과적으로 천자 7묘와 흡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신라가 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別廟의 형태로 불훼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⁹⁾

이처럼 애장왕대에 개편된 묘수는 불훼묘이자 별립된 두 대왕의 묘를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漢代 이후 唐代까지 천자 7묘의 묘수 논쟁에서 핵심은 불훼묘가 아니라 親廟의 수였다. 논자에 따라 친묘 4 혹은 친묘 6의 祔廟를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묘수 정확히는 廟室은 줄어들거나 늘어났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천자 7묘는 漢 元帝대에 종묘제도를 개편하면서 정비되었다. 韋玄成은 周의 7묘를 始封의 后稷과 受命한 文王, 武王의 3개의 不毀廟와 親廟 4로 보았다.¹⁰⁾ 이때에는 불훼묘가 친묘와 함께 묘수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그는 친묘 4를 부묘하는 5묘를 주장하였지만, 원제의 친조부인 皇考廟의 부묘를 위해 7묘로 정비되었다.

이후 哀帝대에 효무제(세종)의 遷廟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劉歆은 친묘 6을 부묘해야 하며, 불훼묘는 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천자는 3昭3穆과 태조로 7묘를 이루며 제후는 2소2목과 태조로 5묘를 이루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개씩 내리는 것(降殺以兩)이 예라고 하였다. 아울러 불훼묘(宗)는 功德에 따라 세우는 것이라 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¹⁾ 그에 따라 태조와 태종, 세종의 불훼묘와 친묘 6을 부묘하여 9묘로 늘어났다.¹²⁾ 그러나 平帝대에

9) 나희라, 앞의 책, 197~200쪽.

10) 至元帝時...玄成等四十四人奏議曰...周之所以七廟者 以后稷始封 文王武王受命而王 是以三廟不毀 與親廟四而七. 『漢書』 전43 韋賢傳.

11) 成帝崩 哀帝即位...太僕王舜中壘校尉劉歆議曰...其文曰 天子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諸侯二昭二穆 與太祖之廟而五...名位不同 禮亦異數 自上以下 降殺以兩 禮也 七者其正法數 可常數者也 宗不在此數中 宗變也 苟有功德則宗之 不可預爲設數. 『한서』 전43 위현전.

12) 김용천(「전한말의 묘의와 공덕·중변론 중법관념의 변용과 확장」, 『중국고중세사연구』 18, 2007.8, 329~338쪽)은 유홍이 시조, 2개의 불훼묘, 친묘 6의 9묘를 주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신성곤(「종묘 제도의 탄생」, 『동아시아문화연구』 57, 2014, 55~56쪽)은 조종묘(태조묘, 태종묘, 세종묘)와 6친묘(혜제, 경제, 소제, 선제, 원제, 성제) 그리고 황고묘, 공황묘로 11묘로 보았다. 그러나 혜제와 경제는 성제가

이르러 王莽의 주장에 따라 태조와 태종과 세종의 불훼묘, 친묘 4를 부묘하는 천자 7묘로 줄어들었다.¹³⁾

이어서 당의 종묘제도를 살펴보자. 당은 貞觀 9년(635)에 朱子奢의 주장을 따라 천자 7묘를 세웠다. 그에 따르면 위현성은 5묘를 주장하였고 유흠은 7묘를 주장하였는데, 鄭玄은 현성을 본받고 王肅은 유흠을 본받아 역대의 묘의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의당 천자는 7묘이고 제후는 5묘로 두 개씩 내리는 것이 바른 예라고 주장하였다.¹⁴⁾ 주자사가 천자 7묘의 구성방법을 5묘와 7묘로 나눈 것은 부묘하는 친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친묘 6을 부묘하는 것은 이후 종묘의 묘실이 늘어나도 고수되었다.¹⁵⁾ 開元 10년(722)에 중종을 재부묘하면서 9室로 확대되었고, 대력 14년(779) 10월에 고조와 태종을 불훼묘로 삼았다. 이후 肅宗 6년(846)에 형제 同室을 근거로 경종, 문종, 무종을 함께 부묘함으로써 9代 11실이 되었다.¹⁶⁾

이처럼 한대 이후 당대에 이르기까지 천자 7묘를 둘러싼 묘수 논쟁에서 관건은 친묘의 수였다. 묘의에 따라 친묘 4 혹은 친묘 6의 부묘가 주장되었다. 당은 유흠과 왕숙의 설을 따라 친묘 6을 부묘하였다. 따라

즉위하면서 친진되었고, 이후 복구되었다는 기록이 없기에 따르지 않는다.

13) 신성곤, 앞의 논문, 56~57쪽.

14) 子奢建言 漢丞相韋玄成奏立五廟 劉歆議當七 鄭玄本玄成 王肅宗歆 於是歷代廟議不能一 且天子七廟 諸侯五 降殺以兩 禮之正也...臣請依古爲七廟...詔可. 『新唐書』 열전 123, 유학상 주자사.

15) 戶崎哲彦, 「唐代における太廟制度の變遷」, 『彦根論叢』 262・263, 1989, 377~388쪽; 朱益, 「唐宋時期太廟廟數的變遷」, 『中華文史論叢』 98期, 2010, 127~132쪽; 안주홍, 「신라 해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2019.6, 128~129쪽.

16) 開元十年...又以中宗還祔太廟 於是太廟爲九室...代宗崩 禮儀使顏真卿議 太祖高祖太宗皆不毀 而代祖元皇帝當遷 於是遷元皇帝而祔代宗...至武宗崩 德宗以次當遷 而於世次爲高祖 禮官始覺其非...於是復祔代宗 而以敬宗文宗武宗同爲一代...以謂三昭三穆與太祖祖功宗德三廟不遷爲九廟者 周制也 及敬文武三宗爲一代 故終唐之世 常爲九代十一室焉. 『신당서』 지3 예악3. 자세한 신주구성은 안주홍, 앞의 논문, 128쪽 표2를 참고하기 바란다.

서 당이 정현의 설을 따라 천자 7묘를 구성하였고, 이를 신라가 참고하여 천자 7묘를 지향하였다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그러나 애장왕대의 개편된 묘수를 제후 5묘로 단언할 수 없다. 신라가 당과 달리 정현의 설을 따라 천자 7묘를 구성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禮記正義』에 실린 천자 7묘의 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기정의』는 『예기』의 공식 교수 경전이었다.¹⁷⁾ 신라가 언제 『예기정의』를 수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¹⁸⁾ 다만 신문왕 2년(682)에 설치된 국학의 교수법에 『예기』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이후에는 『예기정의』가 교수 경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¹⁹⁾ 게다가 『예기』는 국학의 교수법을 볼 때 당과 같이 대경으로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국학의 교수법(業)은 3가지로 나뉘는데, 『논어』와 『효경』이 공통과목이며 거기에 5경과 문선을 나누어 두 개씩 배당하였다.²⁰⁾ 각 업마다 동일한 공통과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국학생들이 3업을 모두 이수했다고 보기 어렵다.²¹⁾ 당의 국자감의 교수법에 근거하여²²⁾ 국학의 교수법을 정리하면, 『예기』와 『주역』은 대경과 소경, 『춘추좌씨전』과 『모시』는 대경과 중경이며 공통과목인 『논어』와 『효경』을 합하면 수업연한은 모두 6년이 된다.²³⁾ 국학의 교수법은 대경을 기준으로 수업기한이 비슷하게

17) 太宗...詔國子祭酒孔穎達與諸儒 撰定五經義疏 凡一百七十卷 名曰五經正義 令天下傳習. 『舊唐書』 권196.

18) 나희라(앞의 책, 176쪽)는 오경정의가 반포되는 시기는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므로, 이때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9) 김영하(「신라 중대의 유학수용과 지배윤리」,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 「유학의 수용과 지배윤리」, 『신라중대사학회연구』, 일지사, 2007, 213~214쪽)는 당과 같이 국학에서 오경정의가 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0) 教授之法...分而爲之業...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尚書論語孝經文選 教授之.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상 국학.

21) 주보돈(「신라의 국학수용과 그 전개」,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30~32쪽)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논어』와 『효경』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업을 단계화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22) 凡禮記春秋左氏傳爲大經 詩周禮儀禮爲中經 易尚書春秋公羊傳穀梁傳爲小經...孝經論語皆兼通之 凡治孝經論語共限一歲 尚書公羊傳穀梁傳各一歲半 易詩周禮儀禮各二歲 禮記左氏傳各三歲. 『신당서』 권44 지34 선거지상.

소경과 중경을 묶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예기』는 국학의 대경 중 하나였고, 그에 따라 교수 경전인 『예기정의』도 중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원성왕 4년(788)에 讀書三品科를 실시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국학의 독서삼품과는 상, 중, 하로 나뉘는데 상품은 『춘추좌씨전』 및 『예기』 및 『문선』을 읽어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라 하였다.²⁴⁾ 이 규정은 국학에서 어느 교수법을 이수하여도 상품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볼 수 있다.²⁵⁾ 그러나 특히 『예기』가 중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품과 하품에 요구하는 공통 경전이 『예기』 곡례이기 때문이다.²⁶⁾ 국학의 공통과목인 『논어』와 『효경』을 읽고, 거기에 『예기』의 首篇인 곡례를 읽으면 적어도 하품 또는 중품을 받으며, 『예기』를 통독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연히 대경 가운데 『예기』가 중시되었을 것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교수 경전인 『예기정의』도 더욱 중시되어 널리 읽혔을 것이다.

신라인들은 『예기정의』를 통해 천자 7묘를 비롯한 종묘제를 이해하였을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필요와 사정에 맞추어 종묘를 개편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기정의』에는 천자 7묘의 묘수와 관련하여 정현과 왕숙의 설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현은 천자 7묘를

23) 한영하(「신라의 국학 교육과 관인 선발」, 『신라사학보』 45, 2019.4, 347~348쪽)는 『논어』와 『효경』을 각기 1년으로 배정하여 국학의 수업연한을 7년으로 추정하였는데, 원문을 잘못 읽은 것이다. 한편 『문선』을 소경인 『상서』와 묶은 것은 외교업무를 진행하는데 문장 능력이 필요했던 사정으로 추정되고 있다(노용필, 「신라 국학의 교육 내용과 『문선』」,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105~108쪽).

24) 春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4년.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상 국학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25) 다만 상, 중, 하품의 공통과목이 국학의 공통과목과 차이가 있어 독서삼품과를 국학 생만을 위한 졸업시험으로 파악하기는 조심스럽다(이영호, 「국학의 성립과 변천」,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90~92쪽). 주보돈(앞의 논문, 40~45쪽)은 상품은 국학의 졸업시험과 같은 성격이면서, 중·하품과 특품은 국학생 외의 존재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았다. 어떤 경우이든 독서삼품과가 국학생에게 유리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26) 김영하(앞의 책, 216쪽)도 『효경』과 예에 관한 과목이 공통과목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의 문왕과 무왕의 허물지 않는 2祧와 시조 및 高祖이하 친묘 4로 보았다고 한다. 한편 왕숙은 고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2祧로 보았다고 한다. 이어서 왕숙이 『聖證論』에서 정현을 비판한 것을 인용하여, 문왕과 무왕은 權禮로 묘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천자와 제후가 (모두) 친묘 4를 부묘하면 준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하였다. 또 儒者들이 정현을 반박한 것을 기술하고, ‘정현의 뜻은 따르기 어려운데 무릇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략이 이와 같으며 모두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²⁷⁾ 즉 친묘 4를 부묘하는 정현의 설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는 정관 9년(635)에 이미 유희과 왕숙의 설에 따라 친묘 6을 부묘하는 7묘를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기정의』에 따르면 친묘 4의 부묘는 제후 5묘인 것이다.

신라는 적어도 신문왕 7년(687)에는 직계 4친을 부묘하는 종묘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²⁸⁾ 이는 『예기정의』에서 말하는 제후 5묘이다. 2소2목의 수는 해공왕대의 개편에서도 고수되었다. 당시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불훼묘로 세우면서, 친묘는 2묘만 부묘하여 소목의 수를 지켰다. 이에 반해 당은 대력 14년(779) 10월에 처음으로 불훼묘를 세우면서, 왕숙의 설에 따라 불훼묘를 소목의 수에서 제외하였다. 당시 종묘의 신주는 태조와 고종, 중종, 예종, 현종, 숙종, 대종의 친묘 6과 고조와 태종의 불훼묘로 구성되었다. 7묘 9실인 것이다. 신라가 이를 차용하지 못한 것은 개편이 당 보다 일찍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²⁹⁾

애장왕대는 해공왕대와 달리 대력 14년(779)의 묘의를 참고할 수 있었고, 독서삼품과의 실시로 『예기정의』가 보다 널리 유통되어 종묘에 대

27) 正義曰 鄭氏之意 天子立七廟 唯謂周也...周所以七者 以文王武王受命 其廟不毀 以爲二祧 並始祖後稷 及高祖以下親廟四 故爲七也 若王肅則以爲天子七廟者 謂高祖之父及高祖之祖廟爲二祧 並始祖及親廟四爲七 故聖證論肅難鄭云 周之文武受命之王 不遷之廟 權禮所施 非常廟之數...今使天子諸侯立廟 並親廟四而止 則君臣同制 尊卑不別...又儒者難鄭云...難鄭之義 凡有數條 大略如此 不能具載. 『예기정의』 권12 왕제5.

28) 변대섭, 「모제의 변친을 통하여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8, 1964, 67~68쪽; 나희라, 앞의 책, 173~174쪽; 채미하, 앞의 책, 139~140쪽.

29) 안주홍, 앞의 논문, 128~130쪽.

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때이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애장왕대에 친묘 4를 부묘하는 것은 정현이 말한 3소3목의 친묘 4가 아니라 왕숙이 말한 2소2목의 친묘 4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애장왕대에 개편된 종묘는 부묘된 친묘의 수에 따르면 제후 5묘라 하겠다.

그렇다면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두 묘를 별립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애장왕대의 종묘를 제후 5묘로 보는 연구자들은 이를 종묘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다. 연구자에 따라 世室(夾室)로 옮겨져 不遷位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도 하고,³⁰⁾ 두 대왕만의 ‘別廟’를 세워 불훼묘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 두 대왕의 별묘를 국가적 차원의 종묘로 보기도 하고,³¹⁾ 오묘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³²⁾

이와 관련하여 고려의 오묘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도 제후 5묘를 운영하면서 두 개의 불훼묘를 두기 때문이다. 고려는 성종대에 제후 5묘를 세웠다.³³⁾ 당시 최승로가 상소를 올리며 군주의 가계를 皇家로 지칭하는 등 고려왕을 천자로 보는 천하관이 공존하였는데도,³⁴⁾ 제후 5묘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고려도 묘실이 점점 늘어나 덕종 이후에는 9실로 운영되었다. 묘실은 늘어났지만 2소2목의 수는 고수되었다. 이는 『古今詳定禮』에 기록된 의종대의 종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태조, 혜종, 현종, 문종, 순종, 선종, 숙종, 예종, 인종의 9실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당과 같이 왕숙의 견해에 따라 불천지주인 혜종과 현종은 소목의 수에서 제외되었다. 또 선종, 숙종, 예종은 형제 同班을 명분으로 하나의 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태조와 2소2목 그리고 2개의 불훼묘로 종묘가 구성된 것이다.³⁵⁾

이처럼 고려도 당과 같이 두 개의 불훼묘를 종묘 안에 두면서 소목의

30) 변태섭, 앞의 논문, 72쪽.

31) 濱田耕策, 앞의 책, 49쪽 ; 채미하, 앞의 책, 205~206쪽.

32) 최홍조,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6, 312쪽.

33) 是歲, 始定五廟.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7년 12월.

34) 노명호, 「고려시대의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 105, 1999, 8~9쪽.

35) 최순권, 「고려전기 오묘제의 운영」, 『역사교육』 66, 1988, 33~47쪽, 56~62쪽.

수에서 제외하였다. 애장왕대에 두 대왕을 별립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별묘 즉 새로운 건축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두 대왕의 신주를 종묘 안에 두면서 소목에서 별립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력 14년(779)의 묘의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이 7묘 9실로 개편하여 불훼묘인 고조와 태종을 계속 종묘에 모신 것처럼, 신라도 5묘 7실로 개편하여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을 계속 종묘에 모실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대왕의 별립을 근거로 당시의 왕실이 무열왕계와는 다른 원성왕계라는 분파의식을 확립하였다고³⁶⁾ 보기는 어렵다. 왕의 계보는 부묘된 친묘를 통해 드러나므로, 원성왕계라는 계보 관념은 직계 4친의 부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애장왕대의 개편은 2소2목의 제후 5묘라는 틀 안에서 직계 4친을 부묘하면서도,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불훼묘를 유지하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대왕을 계속 불훼묘로 모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살펴보겠다.

III.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2묘와 천자 지향

애장왕대의 개편은 대력 14년(779)의 묘의를 참고하여 왕숙의 설에 따라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불훼묘를 소목의 수에서 별립하고 2소2목의 친묘 4를 부묘한 것이었다. 두 대왕은 혜공왕대의 개편으로 불훼묘가 되었다. 이때 신라는 정현의 설을 따라 두 불훼묘를 묘수에 포함하였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현은 주의 문왕과 무왕의 불훼묘를 2祧로 보았다. 『예기』 제법에 따르면 2祧는 천자만이 가지는 遠廟로, 시조와 같이 혈연적 계보를 밝힐 수 없는 공통의 조상이다.³⁷⁾ 두 대왕의 불훼묘

36) 최병헌, 앞의 책, 436쪽; 濱田耕策, 앞의 책, 48~49쪽. 채미하(앞의 책, 2008, 213쪽)와 이문기(앞의 책, 2015, 59~60쪽)는 태종무열왕계와의 타협으로 해석하였으나, 양자를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은 동일하다.

37) 안주홍, 앞의 논문, 131~132쪽.

는 선덕왕, 원성왕, 소성왕대도 종묘에 계속 모셔졌고,³⁸⁾ 그에 따라 두 대왕을 공통의 조상으로 보는 인식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만파식적 설화이다.

『三國遺事』에 따르면 만파식적은 三韓을 지키는 海龍이 된 聖考(문무왕)가 나라를 지키는 보배로 내려준 것이라고 한다. 원성왕은 아버지 효양으로부터 祖宗의 萬波息笛을 받아, 天恩을 두텁게 입고 그 德이 멀리까지 빛났다고 한다.³⁹⁾ 만파식적은 중대 이후 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상징하는 보물이었고, 원성왕은 이를 계승하여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고 있다.⁴⁰⁾ 이때 ‘조종’의 만파식적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원성왕이 문무왕을 자신의 조상으로⁴¹⁾ 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무왕이 내려준 만파식적이 조종의 만파식적으로 불린 것은 혜공왕대의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문무대왕은 태종대왕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大功德으로 대대로 허물지 않는 宗이 되었다.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劉歆은 宗은 功德에 따라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漢 元帝가 功德에 따라 祖宗을 세운다고 한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혜공왕대의 개편은 공덕에 따라 조종을 세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종은 불훼묘였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원제의 조서를 통해 알

38) 혜공왕 이후 애장왕대까지의 신주 구성은 나희라, 앞의 책, 202쪽 표②를 참조하기 바란다.

39) 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 占之曰 聖考今爲海龍鎮護三韓...欲出守城之寶 若陛下幸海 過必得無價大寶.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 王之考大角于孝讓 傳祖宗萬波息笛 乃傳於王 王得之 故厚荷天恩其德遠輝. 『삼국유사』 권2 기이2 원성대왕.

40)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1981, 16~18쪽; 권영오, 「신라 원성왕의 즉위과정」, 『부대사학』 19, 1995 : 「신라시대 정치사 연구」, 혜안, 2011, 137~138쪽; 이문기, 앞의 책, 38~40쪽; 윤선태, 『삼국유사』 기이편 ‘원성대왕’조의 가치-신라 ‘하고’시기의 정치구조와 그 함의-, 『신라문화학회학술발표논문집』 38, 2017, 46~47쪽.

41) 김상현(앞의 논문, 17~18)은 군주의 조상으로 해석할 경우 원성왕이 무열왕계가 되는데, 그는 내물왕계의 부활을 꾀했던 왕이므로 현재 이전의 대대의 군주의 총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수 있다. 원제는 君國廟를 철폐하고 종묘를 세우면서 ‘功이 있으면 祖로 德이 있으면 宗’으로 하는데, 고황제는 태조이고 효문황제는 태종으로 ‘대대로 제사 지내야 한다’며 태종의 부모를 지시하였다. 이에 위현성도 ‘조종의 묘는 대대로 헐지 않는다’면서 태조 고황제, 태종 효문황제와 효경황제(5대조), 효무황제(4대조), 효소황제(종증조), 효선황제(부)와 親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皇考廟(조부)의 부모를 주장하였고, 원제는 이를 받아들였다.⁴²⁾

시조는 공통의 조상이라 불휘묘이다. 효문황제(태종)는 공덕에 따라 조종이 되었고, 태조(시조) 고황제와 같은 불휘묘였다. 이는 ‘태조(시조)와 같은 공통의 조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해공왕대의 개편으로 시조와 같은 ‘공통의 조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문무왕이 내려준 만파식적을 조종의 만파식적 즉 공통의 조상님이 내려주신 만파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종묘에서 조종은 어떤 지위 관념을 반영하고 있을까? 이는 신라와 당 사이에 벌어진 태종 묘호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다. 태종대왕은 태종이라는 묘호와 무열이라는 시호가 모두 기록된 유일한 왕이다.⁴³⁾ 태종대왕의 묘호 논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당시 신라 사회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문왕 12년(692)에 당 중종은 太宗文皇帝는 神功聖德하여 廟號를 태종이라 하였는데, 너희 나라의 先王 김춘추가 같은 (묘)호를 쓰는 것은 참될므로 급히 칭호를 고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신라는 小國의 선왕 김춘수의 諡號가 우연히 聖祖의 묘호와 서로 같지만, 생각해보면 선왕 김춘추도 자못 賢德이 있고 一統三韓하여 그 功業이 많아서, 나라의 신화와 백성이 추존한 호이니 이러한 사정을

42) 罷郡國廟後...依違者一年 乃下詔曰 蓋聞王者 祖有功 而宗有德 尊尊之大義也 存親廟四 親親之至恩也...高皇帝爲漢太祖 孝文皇帝爲太宗 世世承祀 傳之無窮 朕甚樂之...玄成等奏曰 祖宗之廟世世不毀 繼祖以下 五廟而迭毀 今高皇帝爲太祖 孝文皇帝爲太宗 孝景皇帝爲昭 孝武皇帝爲穆 孝昭皇帝與孝宣皇帝俱爲昭 皇考廟親未盡...奏可. 『한서』 전43 위현전.

4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여름 6월.

잘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⁴⁴⁾ 사실상 당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당 고종이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⁴⁵⁾ 그에 따라 논쟁의 정확한 시기와 주체, 종묘제의 수용 여부와 짝하여 묘호의 여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⁴⁶⁾

분명한 것은 신문왕대에는 종묘에 모셔진 김춘추의 신주를 태종대왕으로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문왕 7년(687) 4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왕은 祖廟에 사신을 보내 致祭하였는데, 太祖大王, 眞智大王, 文興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을 언급하고 있다.⁴⁷⁾ 이때의 조묘는 종묘이며, 태조를 비롯한 신문왕의 직계 4친을 부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⁸⁾

최근 신문왕이 태종의 시호를 올려 무열이라는 시호를 대체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에 따르면 태종무열왕은 묘호와 시호를 모두 가진 것으로 기록된 유일한 예인데, 다른 왕들이 시호로 기록된 것을 볼 때 태종호는 묘호에서 가져온 시호일 것이라고 한다.⁴⁹⁾ 그러나 태종이

44) 唐中宗遣使口勅曰 我太宗文皇帝 神功聖德 超出千古 故上僊之日 廟號太宗 汝國先王金春秋 與之同號 尤爲僭越 須急改稱. 王與羣臣同議對曰 小國先王春秋諡號 偶與聖祖廟號相犯 勅令改之 臣敢不惟命是從 然念先王春秋 頗有賢德 況生前得良臣金庾信 同心爲政 一統三韓 其爲功業 不爲不多 捐館之際 一國臣民 不勝哀慕 追尊之號 不覺與聖祖相犯 今聞教勅 不勝恐懼 伏望使臣復命闕庭 以此上聞 後更無別勅.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12년 봄.

45) 神文王時唐高宗遣使新羅曰 朕之聖考 得賢臣魏徵李淳風等 協心同德 一統天下 故爲太宗皇帝 汝新羅 海外小國 有太宗之号 以僭天子之名 義在不忠速改其号 新羅王上表曰 新羅雖小國 得聖臣金庾信 一統三國 故封爲太宗 帝見表 乃思儲貳時 有天唱空云 三十三天之一人 降於新羅爲庾信 紀在於書 出檢視之驚懼不已 更遣使許無改太宗之号.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조.

46) 분쟁 시기와 주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016, 285~29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47)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7년 4월.

48) 주 28번 참고.

49) 윤경진,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2013, 223~224쪽.

라는 묘호가 유일하다고 해서 신라에서 묘호제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종묘제의 전형을 마련한 한대에도 부묘된 모든 왕이 묘호, 정확히는 조종의 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 원제는 고황제와 효문황제에게만 태조와 태종의 호를 올렸다. 이러한 사정은 대력 14년(779)에 顏眞卿의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代宗의 신주를 부묘하기 위해 元皇帝의 천묘를 주장하면서, 전한의 열두 황제에서 조종은 4개뿐이었는데 후한에 이르러 점차 경전의 뜻을 거스르고 자손이 선조를 기리고자 하여 광무이하로부터 모두 묘호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까닭에 근래에는 모두 묘호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자손이면 선왕이 조종이 아닌 자가 없으니, 조종의 호가 불훼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⁰⁾

안진경의 말을 통해 조종의 호는 공덕에 따라 올리는 것이지만, 후한 이래 당대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천자의 묘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조종이 묘호가 된 이유로 ‘선조를 기리는 마음(子孫以推美爲先)’을 꼽은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밑바닥에는 천자인 자신의 선조는 조종의 호를 올릴 만큼 특별한 공덕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는 신문왕 12년(692)에 당이 태종 묘호를 고칠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태종 문황제는 ‘神功聖德’하여 묘호를 태종으로 하였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공덕에 따라 조종의 호를 받는 천자 태종 문황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태종대왕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태종의 호를 받았다. 당시 신라는 ‘頗有賢德’과 ‘一統三韓 其爲功業’으로 태종의 호를 올렸다고 하였다. 이는 공덕에 따라 조종을 세운 것을 말하며, 태종호가 중국의 천자와 같은 조종의 호임을 드러낸 것이다.⁵¹⁾ 그러면서도 시호라는 외교적 연사

50) 大歷十四年十月 代宗神主將祔 禮儀使顏眞卿 以元皇帝代數已遠 準禮合祧 請遷於西夾室 其奏議曰...或議者以祖宗之名 難於迭毀 昔漢朝近古 不敢以私滅公 故前漢十二帝 爲祖宗者四而已 至後漢漸違經意 子孫以推美爲先 自光武已下 皆有廟號 則祖宗之名 莫不建也...故近代此名悉爲廟號 未有子孫踐祚 而不祖宗先王者 以此明之 則不得獨據兩字 而爲不合祧遷之證. 『구당서』 권24 지5 예의5.

51) 주보돈(「통일신라의 (릉)묘비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9, 2012.11, 45~

를 구사하여⁵²⁾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다. 즉 조종을 묘호와 동일시하는 당의 인식을 역으로 활용하여 조종을 시호로 언급함으로써 문제를 무마시킨 것이다. 신문왕 12년(692)에 벌어진 논쟁의 핵심은 묘호의 여부가 아니라 묘호로 사용된 조종의 호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태종대왕은 묘호를 가진 유일한 예가 아니라 조종의 호를 받은 유일한 예라 하겠다.

태종이라는 조종호에 반영된 천자의식은 해공왕대의 개편으로 문무왕에게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두 대왕의 공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것인데, 이는 신문왕 12년(692)에 언급한 태종호의 공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결국 해공왕대의 개편은 두 대왕을 정현의 설에 따라 천자만이 가지는 2祧로 세운 동시에 천자와 같이 공덕에 따라 조종으로 세운 것이라 하겠다.

두 대왕을 조종으로 보는 인식은 애장왕대에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왕숙의 설에 따라 종묘를 개편하였으므로, 더 이상 두 대왕은 정현이 말한 2祧일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문왕과 무왕에 비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당의 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永貞 원년(805)에 杜黃裳은 옛날에는 功이 있으면 祖로 德이 있으면 宗으로 세우고 모두 헛지 않았는데, 태조 경황제는 덕이 주의 후직과 같고, 고조 신요황제는 덕이 주의 문왕과 같고 태종 문황제는 덕이 주의 무왕과 같으므로 모두 허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듬해 원화 원년(806)에 王涇建도 주에서는 후직을 태조로, 문왕을 조로, 문왕을 종으로 하였는데, 당도 경황제를 태조로 고조를 조로, 태종을 종으로 하여 모두 허물지 않는다고 하였다.⁵³⁾ 즉 공덕에 따라 고조와 태종을 조종으로 세웠

49쪽)은 태종무열대왕비의 건립연대를 분석하며 신라가 의도적으로 당태종과 동일한 묘호를 사용하였고, 여기에는 오묘제를 부정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았다. 당시 신라가 제후 5묘가 아닌 천자 7묘를 지향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태종이라는 묘호에 천자의식이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

52) 박남수(앞의 논문, 293~294쪽)도 태종은 천자가 칭할 수 있는 묘호이며, 신라가 시호라 칭한 것은 외교적 연사라고 설명하였다.

53) 永貞元年十一月 德宗神主將附 禮儀使杜黃裳與禮官王涇等請 遷高宗神主 於西夾室

으며, 이들은 주의 무왕과 문왕과 같다는 것이다.

II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정현은 문왕과 무왕을 2祧이자 시조와 같은 불훼묘로 보았다. 이는 문왕과 무왕이 시조와 같은 공통의 조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은 왕숙의 설에 따라 2祧를 5대조와 6대조로 보았다. 그런데도 고조와 태종을 문왕과 무왕에 비견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조와 같은 공통의 조상을 불훼묘를 세운다’는 이라는 인식 속에서, ‘조종’에 ‘주의 문왕과 무왕’이 착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의 경우를 볼 때 애장왕대의 개편이후에도 두 대왕은 여전히 궁덕에 따라 세운 조종이자 주의 문왕과 무왕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두 대왕에 내표된 천자 지향은 개편과정에서 환기되었을 것이며, 애장왕은 이를 통해 천자임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IV. 皇祖, 皇考와 천자 지향

『삼국사기』에서 부묘된 신주를 언급하는 기사는 애장왕 2년의 기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이 있다. 하나는 신문왕 7년(687)의 기사로 I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왕의 이름만 기술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원성왕 원년(785)의 기사로, 선덕왕대에 부묘된 성덕대왕과 개성대왕의 2묘를 혈고조 흥평대왕과 考 명덕대왕으로 5묘를 세웠다고 표기되어 있다.⁵⁴⁾ 애장왕 2년(801)의 기사에만 皇祖, 皇考로 기술되어 있다.

其議曰...古者祖有功 宗有德 皆不毀之名也...伏以太祖景皇帝受命於天 始封元本 德同周之後稷也 高祖神堯皇帝國朝首祚 萬葉所承 德同周之文王也 太宗文皇帝應天靖亂 垂統立極 德同周武王也 周人郊後稷而祖文王宗武王 聖唐郊景皇帝祖高祖而宗太宗 皆在不遷之典...元和元年七月 順宗神主將祔...太常博士王涇建議曰 禮經祖有功 宗有德 皆不毀之名也...周人三十六王 以後稷爲太祖 祖文王而宗武王 聖唐德厚流廣 遠法殷周 奉景皇帝爲太祖 祖高祖而宗太宗 皆在百代不遷之典...順宗升祔 中宗在三昭三穆之外 謂之親盡 遷於太廟夾室 禮則然矣. 『구당서』 권24 지5 예의5.

54) 毀聖德大王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 『삼국사기』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원년 2월.

기록이 소략한 고대사에서 황조, 황고라는 표현이 남겨지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제까지의 왕권에 비하여 권위를 크게 높인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다.⁵⁵⁾ 이에 반해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신라가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단순한 존칭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⁶⁾ 과연 황조, 황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해당 표기가 신라 당대의 것인지 검토해보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논찬에서 최치원이 帝王年代曆에 居西干 등의 명칭을 쓰지 않고 모두 왕을 칭한 것을 비판한 것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실대로 기록하려는 자세가 존재한다.⁵⁷⁾ 그러면서 고려를 고구려로 표기하거나, 大王을 본기에서는 모두 왕으로 표기하는 등 집필진의 개서도 존재한다.⁵⁸⁾ 애장왕 2년의 기사는 대왕호를 쓰고 있으므로 당대의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애장왕 2년에 기록된 황조, 황고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단순한 존칭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묘지명에서 망자의 가계를 소개하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皇考 또는 皇祖로 기록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⁵⁹⁾ 고려 이전의 묘지명에도 황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본문이 아니라 詞나 銘에 등장하는 점에서 고려시대 묘지명과 차이가 있다.⁶⁰⁾ 망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묘지명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은

55) 濱田耕策, 앞의 책, 262쪽.

56) 최홍조, 앞의 논문, 312~313쪽.

57) 신형식, 『삼국사기 연구』, 일조각, 1981, 359~363쪽.

58) 정구복, 「삼국사기의 원전 자료」,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8~19쪽.

59) 자료검색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고려시대사료에서 진행하였다. 해당 묘지명은 다음과 같다.(2020.1.17.) ①朴景仁墓誌銘(1122), ②安稷崇墓誌銘(1135), ③崔時允墓誌銘(1146), ④崔婁伯妻康瓊愛墓誌銘(1148), ⑤皇甫讓妻金氏墓誌銘(1149), ⑥崔允義妻金氏墓誌銘(1152), ⑦尹誦墓誌銘(1154), ⑧朴景山墓誌銘(1158), ⑨李應璋墓誌銘(1177), ⑩吳元卿墓誌銘(1181), ⑪金純墓誌銘(1197) ⑫李尊庇墓誌銘(1287).

60) 자료검색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한국고대금석문에서 진행하였고, 2건이 존재한다.(2020.1.17.) ①泉獻誠墓誌銘(701)의 詞와 ②혹치준의 묘지명(706)의 銘으로, 원문과 해석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

역으로 대외적으로는 통상적인 망자의 존칭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황조, 황고라 칭하는 근거는 『예기』 곡례에 있다. 그에 따르면 제사 지낼 때 王父 즉 할아버지를 皇祖考로, 아버지를 皇考로 부르는데, 살아있을 때는 父로 부르고, 죽으면 考로 부른다고 한다.⁶¹⁾ 考는 죽은 아버지를 말하며, 여기에 皇자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皇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없다.

그런데 『예기』 제법에서는 증조부의 묘를 皇考廟로 칭하고 있다.⁶²⁾ 이와 관련하여 唐 高祖가 武德 원년(618)에 4대조를 부묘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皇高祖, 皇曾祖, 皇祖, 皇考로 표기되었다.⁶³⁾ 이러한 표기는 漢 平帝대에 皇高祖考廟⁶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考, 祖考에 皇을 붙인 『예기』 곡례의 표기와 유사하다. 이로 미루어 한대에서 당대까지 황고를 증조할아버지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皇의 의미가 중요한데, 『예기정의』에는 곡례의 황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현은 皇은 君이고 考는 成으로, 그 ‘덕행’이 이루어진 것(其德行之成)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⁶⁵⁾ 孔穎達도 이를 수용하여 王父는 祖父로 皇은 君이고 考는 成으로 할아버지가 ‘君德’을 이미 이룬 것(祖有君德已成之)을 말한다고 풀이하였다.⁶⁶⁾ 皇을 君으로 보는 해석은

다. 권덕영의 『한국고대금석문종합색인』(학연문화사, 2002, 1614쪽)에도 皇考는 두 자료만 지적하고 있다.

61) 祭王父曰皇祖考...父曰皇考...生曰父...死曰考. 『예기』 권5 곡례.

62) 是故王立七廟...曰考廟曰王考廟曰皇考廟曰顯考廟曰祖考廟. 『예기』 권46 제법. 곡례와 제법의 표기 차이는 정병섭, 『역주 예기집설대전 제법』, 학고방, 2015, 201~203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63) 六月...己卯 追諡皇高祖曰宣簡公 皇曾祖曰懿王 皇祖曰景皇帝 廟號太祖...皇考曰元皇帝 廟號世祖. 『신당서』 권1 본기1 고조 무덕 원년.

64) 至平帝元始中 大司馬王莽奏...臣請皇高祖考廟奉明園毀勿修 罷南陵 雲陵爲縣 奏可. 『한서』 전43 위현전.

65) 皇君也 考成也 言其德行之成也. 『예기정의』 권5 곡례하 제2.

66) 疏...王父祖父也 皇君也 考成也 此言祖有君德已成之也. 『예기정의』 권5 곡례하 제2.

제법에도 계속되었다. 정현과 공영달은 제법에서 황고를 증조부로 지칭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다만 각각의 문자를 풀이하였는데, 皇은 君 또는 大君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⁷⁾ 결국 『예기정의』에 따르면 황은 (大)君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군은 군주, 즉 천자인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皇考廟 설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漢 宣帝가 생부 史皇孫을 위해 황고묘를 세웠고 考자 앞에 皇을 붙여 대통의 계승 관계가 성립된 것처럼 하는 동시에 昭帝(祖)-황고(子)-宣帝(孫)로 이어지는 昭穆상의 종통 계승이 정비되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⁶⁸⁾ 선제는 무제의 증손으로 元平 원년(B.C. 74) 4월 소제가 사망하자 그를 이어 즉위하였다.⁶⁹⁾ 그는 元康 원년(B.C. 65) 5월에 황고묘를 세웠는데,⁷⁰⁾ 바로 친부인 史皇孫의 묘였다. 당시 관련 부서는 ‘禮에 아버지가 士이고, 아들이 天子가 되면 천자로서 제사를 지내니, 尊號하여 皇考라 하고 廟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¹⁾ 이때의 황고는 ‘천자(皇)의 돌아가신 아버지(考)’로 볼 수 있다. 평제대에 사황손의 묘를 황고조고묘라 칭한 것도 그가 황제(천자)의 고조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묘에 부모된 신주를 지칭할 때 사용된 皇은 단순한 존칭이라기보다는 황제, 皇家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당 중종이 神龍 원년(705)에 太廟(종묘)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

정병섭(『역주 예기집설대전 곡례』, 학고방, 2015, 774쪽)은 祖有君德已成之를 군주와 같은 덕성을 이미 완성한 면이 있다고 풀이하였다.

67) 王皇皆君也 顯明也 祖始也 名先人以君明始者 所以尊本之意也...疏...曰皇考廟者 曾祖也 皇大也君也 曾祖轉尊 又加大君之稱也. 『예기정의』 권46, 제법 제23.

68) 김용천, 「한 선제가 예제 논의-‘위인후자’예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33, 1999, 117쪽.

69) 元平元年四月 昭帝崩 母嗣...秋七月 光奏議曰...孝武皇帝曾孫病已...可以嗣孝昭皇帝 後 奉承祖宗 子萬姓 奏可...庚申 入未央宮 見皇太后 封爲陽武侯 已而群臣奉上璽綬 即皇帝位 謁高廟. 『한서』 기8 선제기.

70) 元康 元年...夏五月 立皇考廟 益奉明園戶 爲奉明縣. 『한서』 기8 선제기.

71) 後八歲 有司復言 禮父爲士 子爲天子 祭以天子 悼園宜稱尊號曰皇考 立廟 因園爲寢 以時薦享焉 益奉園民滿千六百家 以爲奉明縣. 『한서』 전33 武五子傳.

다. 天授 2년(691)에 측천무후는 황제를 칭하며 태묘에 무씨의 7대 신주를 모셨다. 그에 따라 서경의 태묘는 享德廟가 되고, 고조 이하 3실(고조, 태종, 고종)만 모셔졌다. 이를 다시 천자 7묘로 만든 것이 신룡 원년(705)이다. 당시 많은 논쟁 끝에 경황제를 태조로 삼고 6실을 맞추기 위해 효경황제를 의종으로 삼아 종묘에 부모하였다. 그해 8월에 광황제, 태조 경황제, 대조 원황제, 고조 신요황제, 태종 문무성황제, 皇考 고종 천황대제, 皇兄 의종 효경황제를 부모하였다.⁷²⁾ 다시 3소3목과 태조의 천자 7묘가 된 것이다. 당시 張齊賢은 경황제를 태조라 주장하면서, 태묘를 ‘皇家’의 太廟라 표현하였다.⁷³⁾ 고종과 의종을 황고, 황형으로 표현한 것도 황가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애장왕대의 皇祖, 皇考도 단순한 존칭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황제 혹은 황족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애장왕 2년(801)의 기사가 대체로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⁷⁴⁾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월에 耽羅國에서 사신을 보내 조공한 일이다. 신라는 당의 세계질서 안에서 제후왕이었지만 책봉의 주체자로 보덕국왕을 책봉하거나 탐라의 조공을 받았다.⁷⁵⁾ 즉 천자로서 제후인 탐라의 조공을 받은 것이다.

9월의 기사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이때 熒惑이 달에 들어갔다고 한다. 형혹은 五常 중 禮에 해당하며, 나오면 전쟁이 있고 들어가

72) 天授二年 則天既革命稱帝 於東都改制太廟爲七廟室 奉武氏七代神主 祔於太廟 改西京太廟爲享德廟 四時唯享高祖已下三室 餘四室令所司閉其門 廢其享祀之禮...中宗即位 神龍元年正月 改享德廟依舊爲京太廟...時有制令宰相更加詳定 禮部尚書祝欽明等奏言...臣等商量 請依張齊賢 以景皇帝爲太祖 依劉承慶尊崇六室 制從之 尋有制以孝敬皇帝爲義宗 升祔於太廟 其年八月 崇祚光皇帝 太祖景皇帝 代祖元皇帝 高祖神堯皇帝 太宗文武聖皇帝 皇考高宗天皇帝 皇兄義宗孝敬皇帝 於東都之太廟 躬行享獻之禮. 『구당서』 권25 지5 예의5.

73) 太常博士張齊賢建議曰...景皇帝始封唐公 實爲太祖 中間代數既近 列在三昭三穆之內 故皇家太廟 唯有六室. 『구당서』 권25 지5 예의5.

74) 秋九月 熒惑入月 星隕如雨 武珍州進赤烏 牛頭州進白雉 冬十月...耽羅國遣使朝貢.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애장왕 2년.

75) 채미하, 앞의 논문(2017.9), 79~80쪽.

면 군사가 흩어진다고 한다(出則有兵入則兵散).⁷⁶⁾ 형혹이 달에 들어간 것은 성덕왕 34년(735)에도 있었다.⁷⁷⁾ 이해에 신라는 김의충을 당에 하정사로 보내 패강이남의 땅에 대한 지배권을 용인받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애장왕 2년의 형혹 기사도 국가의 안정을 표방하는 상징물로 읽을 수 있다.

이어서 무진주와 우두주에서 赤鳥와 白雉를 바쳤다고 한다. 붉은 까마귀는 주 무왕이 아버지 문왕의 대업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상으로 새 왕조의 확립과 왕조의 정당성이 천명에 의해 보장되는 상징이라고 한다. 흰 꿩도 주공의 공덕을 상징하는 서상이었다고 한다.⁷⁸⁾ 형혹이 禮에 해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9월의 기사는 2월의 종묘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주의 문왕과 무왕처럼 천명을 받은 천자임을 서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애장왕 2년(801)에 끊임없이 즉위의 정당성을 드러낸 것은 역으로 즉위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시사한다.⁷⁹⁾ 신라왕은 즉위 후 당의 책봉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분식시켜왔다. 그런데 소성왕의 경우 책봉사 韋丹이 운주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해버렸다.⁸⁰⁾ 결과적으로 애장왕은 당의 책봉을 받지 못한 왕의 계승자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의 할아버지인 혜충대왕은 추봉왕이었다.

혜충대왕은 애장왕의 증조할아버지인 원성왕의 태자였다. 원성왕은 선덕왕 사후에 김주원과 경쟁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⁸¹⁾ 그는 왕권과 왕

76) 이회덕, 「고대의 자연관과 유교정치사상」, 『한국고대 자연관과 왕도정치』, 혜안, 1999, 28~34쪽. 다만 그는 이 기사를 김언승이 권력을 장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같은 책, 321~322).

77) 春正月 熒惑犯月 遣金義忠入唐賀正...義忠迴 勅賜涇江以南地.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성덕왕 34년.

78) 이회덕, 앞의 책, 282~285쪽. 그러나 신라의 경우 일반화된 서상으로 진현되었다고 보았다.

79) 채미하(앞의 책, 211~212쪽)는 소성왕 2년(800) 4월 천재지변 기사를 근거로 정치적 불안을 추정하였다.

80)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애장왕 즉위년.

81)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즉위년.

통을 확립하기 위해 즉위하자마자 4대조를 추봉하고 아들 인검을 태자로 삼았는데,⁸²⁾ 그가 바로 혜충대왕이다. 그러나 태자 인검은 원성왕 7년(791)에 사망하였고, 원성왕은 이듬해 8월에 다른 아들인 의영을 태자로 삼았다. 태자 의영도 원성왕 10년(794) 2월에 사망하자 이듬해 정월에 혜충태자(인검)의 아들인 준옹을 태자로 삼았다. 그가 애장왕의 아버지인 소성왕이다. 소성왕은 즉위 후 아버지인 혜충태자를 혜충대왕으로 추봉하였다.⁸³⁾ 애장왕의 할아버지인 혜충대왕은 추봉왕이자 원성왕의 태자 중 하나였던 것이다.

애장왕대에 친묘 4의 부묘로 개편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애장왕은 종묘개편을 하지 않아도 원성왕의 신주를 계속 모실 수 있었다. 앞서 중국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부묘의 원칙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다. 혜공왕대에 개편된 부묘의 원칙인 친묘 2도 마찬가지이다. 통상 직계 2친을 부묘하겠지만, 선덕왕이 외할아버지인 성덕왕을 부묘한 것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소성왕대에는 친묘로 할아버지인 원성대왕과 아버지인 혜충대왕을 부묘하였다고 추정되고 있다.⁸⁴⁾ 애장왕은 ‘남의 뒤를 잇게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爲人後者)’는 예설을⁸⁵⁾ 명분으로 삼아, 혜충대왕을 친묘하고 소성왕의 신주를 부묘하여 원성왕을 잇게 할 수 있었다. 또는 당이 景雲 원년(710)에 의종을 즉위하지 않은 추봉왕이라는 이유로 친묘한 것을⁸⁶⁾ 명분으로 삼아, 혜충대왕을 친묘하고 소성왕을 부묘할 수 있었다.

82) 김창겸, 「왕위계승의 양상과 특징」, 『신라 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101~104쪽.

83)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원성왕 즉위년, 7년 춘정월, 8년 추8월, 10년 춘2월, 11년 춘 정월, 소성왕 원년 여름 5월.

84) 濱田耕策, 앞의 책, 52쪽; 나희라, 앞의 책, 202~204쪽; 채미하, 앞의 책, 207쪽.

85) 위인후자설은 김용친, 앞의 논문(1999), 112~118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86) 景雲元年冬 將葬中宗孝和皇帝於定陵 中書令姚元之吏部尚書宋璟奏言...伏以義宗未登大位 崩後追尊 ...遷祔孝敬皇帝 哀皇后神主 命有司以時享祭...制從之. 『구당서』 권 25 지5 예의5.

그런데도 직계 4친으로 부묘의 방법을 바꾼 것은 원성왕의 신주와 아울러 혜충대왕의 신주를 계속 종묘에 모시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개편은 섭정인 김언승이 주도하였다고 추정되는데,⁸⁷⁾ 혜충대왕의 부묘를 고수한 주체도 바로 그였을 것이다. 김언승은 소성왕의 同母弟로 혜충대왕의 아들이었다.⁸⁸⁾ 그가 혜충대왕의 부묘를 고수한 이유는 당의 묘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당 현종은 개원 4년(716)에 중종을 천묘하고 예종을 부묘하여, 고종을 계승한 것은 예종임을 드러내었다.⁸⁹⁾ 이처럼 왕은 부묘를 통해 왕위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누구에게 계승되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 애장왕대의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언승은 혜충대왕을 부묘하여 원성왕의 여러 태자 가운데 그를 계승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결국 황조 혜충대왕과 황고 소성대왕이라는 표현은 신라 왕실이 황가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황가의 범위가 혜충대왕과 소성대왕의 피붙이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계 4친을 부묘하지만, 祖考를 특별히 중시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개편은 근친 왕족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기보다,⁹⁰⁾ 원성왕계 내부의 혈족집단을 가족 단위로 분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⁹¹⁾ 소위 인검계의 확립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직계 2친을 중심으로 근친 왕족이 재편되는 현상은 효성왕대부터 시작되어 혜공왕대의 개편으로 더욱 강화되었고,⁹²⁾ 직계 4친을 부묘한 애장왕대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개편은 원성왕

87) 이문기, 「신라 김씨 왕실의 소호금천씨 출자관념의 표방과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 1999, 676~677쪽; 채미하, 앞의 책, 208쪽.

88)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헌덕왕 즉위조.

89) 開元四年 睿宗崩 及行祔廟之禮 太常博士陳貞節蘇獻等奏議曰...奉睿宗神主升祔太廟...上繼高宗...則昭穆永貞 獻祿長序 制從之. 『구당서』 권25 지 5 예의 5. 안주홍, 앞의 논문, 137쪽.

90) 채미하, 앞의 책, 213~216쪽.

91) 이기동, 앞의 책, 154쪽.

92) 안주홍, 앞의 논문, 144~146쪽.

의 신주를 계속 모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원성왕 계라는 왕족의 확립이자 인접계라는 근친 왕족의 분지화로 볼 수 있다.

VI. 맺음말

이제까지 애장왕대의 개편된 신주의 표기를 통해 왕의 지위 관념을 검토해보았다. 당시의 개편은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불훼묘를 유지하면서, 원성대왕과 혜충대왕의 신주를 계속 모시기 위해 이루어졌다. 2소2목의 수를 고수한 점에서 제후 5묘이지만,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불훼묘를 유지한 점에서 천자 지향을 읽을 수 있다. 두 대왕은 천자 7묘에서 공덕에 따라 세우는 조종이자, 주의 문왕과 무왕과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종묘개편은 당의 제후국이면서도 일통삼한한 천자국이라는 신라의 이중적인 천하관이 반영된 것이다. 신라의 천하관은 동아시아의 중심점인 당 제국이 몰락하는 대외적인 상황과 짝하여 확대 강화되고, 마침내 고려의 이중적 천하관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천하관과 황제의식을 표방한 신라 왕실의 신분 관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다음을 기약하겠다. 아래에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II장에서는 한대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천자 7묘의 묘수 논쟁을 살펴해보았다. 당은 왕숙의 설에 따라 친묘 6을 부묘하였고, 당시 『예기』의 공식 해설서인 『예기정의』도 친묘 6의 부묘를 주장하였다. 『예기』는 신라의 국학에서 대경이었고, 원성왕 4년(788)에 실시된 독서삼품과로 인해 더욱 중시되었다. 그에 따라 『예기정의』도 널리 읽혔을 것이다. 애장왕대의 개편은 『예기정의』와 대력 14년(779)의 묘의를 참고하여 왕숙의 설에 따라 제후 5묘로서 2소2목의 친묘 4를 부묘하고, 두 대왕의 불훼묘를 소목의 수에서 별립한 것이었다. 두 대왕은 여전히 종묘에 모셔진 것이므로, 두 대왕을 별립을 근거로 원성왕계의 확립을 말하기 어렵다.

III장에서는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불훼묘를 祖宗의 호가 가지는 의

미를 통해 살펴보았다. 해공왕대의 개편으로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주의 문왕과 무왕과 같은 2祧이자,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大功德으로 대대로 허물지 않는 宗이 되었다. 이는 천자가 功德에 따라 祖宗을 세운 것과 같다. 신문왕 12년(692)의 태종 묘호 논쟁은 조종의 호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태종호에 반영된 천자의식은 해공왕대의 개편으로 문무왕까지 확대되었다. 조종은 시조와 같은 불체묘였는데, 이는 시조와 같은 공통의 조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원성왕은 ‘祖宗’의 만파식적을 계승할 수 있었다. 애장왕대의 개편에서도 두 대왕은 祖宗이자 주의 문왕과 무왕에 비견되었고, 신라 왕실은 이를 통해 천자 지향을 드러낼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皇祖, 皇考라는 표현에 반영된 皇家의식을 살펴보았다. 『예기』 곡례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皇考, 할아버지를 皇祖考라 부르는데, 『예기정의』의 해석에 따르면 皇은 君이다. 군은 천자 즉 황제를 의미하는데, 漢 宣帝의 皇考廟 설립과 唐 신룡 원년(705)의 皇家의 태묘, 皇考, 皇兄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애장왕대의 개편은 증조할아버지인 원성왕과 함께 할아버지인 해충대왕을 계속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섭정인 김언승은 개편을 통해 원성왕이 구축한 황가가 황조 해충대왕과 황고 소성대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다. 결국 애장왕대의 개편은 원성왕계라는 왕족의 확립이자 인겸계라는 근친 왕족의 분지화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2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삼국사기』, 『한서』,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예기』, 『예기정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정병섭, 『역주 예기집설대전 곡례』, 학교방, 2015.
정병섭, 『역주 예기집설대전 제법』, 학교방, 2015.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이기동,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이희덕, 『한국고대 자연관과 왕도정치』, 해안, 1999.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2008.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김영하, 「신라 중대의 유학수용과 지배윤리」,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 「유학의 수용과 지배윤리」,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김용천, 「한 선제기 예제 논의-‘위인후자’예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33, 1999.
김용천, 「전한말의 묘의와 공덕·종변론 종법관념의 변용과 확장」, 『중국고중세사연구』 18, 2007.8.
김창겸, 「신라 원성왕계 왕의 황제·황족적 지위와 골품 초월화」, 『백산학보』 52, 1999 : 『신라 하대 국왕과 정치사』, 온샘, 2018.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 1997 :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016.
변태섭, 「묘제의 변천을 통하여 본 신라사회의 발전과정」, 『역사교육』 8, 1964
신성곤, 「종묘 제도의 탄생」, 『동아시아문화연구』 57, 2014.
안주홍, 「신라 해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2019.6.
윤경진,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 시호의 추상과 재해석」, 『한국사학보』 53, 2013.

-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역사학보』 85, 1980 : 『신라골품 제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 이문기, 「신라 하대 사회의 성립과 전개」,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 주보돈, 「통일신라의 (릉)묘비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2012.11
- 채미하, 「신라의 책봉의례와 그 기능」, 『사학연구』 127, 2017.9.
- 채미하, 「애장왕 · 헌강왕대의 대일외교와 그 활용」, 『신라사학보』 44, 2018.12
- 최병헌, 「신라 하대사회의 동요」,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1.
- 최순권, 「고려전기 오묘제의 운영」, 『역사교육』 66, 1988.
- 최홍조, 「신라 애장왕대의 정치개혁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6.
- 濱田耕策, 「新羅の神宮と百座講會と宗廟」,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學生社, 1982 :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濱田耕策, 「下代初期における王權の確立過程とその性格」, 『朝鮮學報』 176 · 177, 2000.12 :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 朱溢, 「唐宋時期太廟廟數的變遷」, 『中華文史論叢』 98期, 2010.
- 戶崎哲彦, 「唐代における太廟制度の變遷」, 『彦根論叢』 262 · 263, 1989.

Abstract

The Jongmyo Reforms and Cheonja Orientation of the Silla King Aejang Period

An, Ju-hong

This text analyzes the Jongmyo reforms that occurred during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King Aejang (801) and traces the concepts of rank reflected in the reforms. The reforms at the time referred to the discussion on the Jongmyo(廟議) in the 14th year of dali(大曆) of Tang(779) and *lijizhengyi*(禮記正義) that follows Wang Su(王肅)'s interpretation. Therefore King Taejong and King Munmu wer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zhaomu(昭穆). Placed the four shrines of blood relatives(親廟 4) means that the number of the ancestral tablet(廟數) was five royal shrines(諸侯五廟) of two of zhao(昭) and two of mu(穆). The two great kings still was placed the Jongmyo. Therefore it is hard to say that King Wonseong's bloodline was established because their tablet was located in another place.

During the reign of King Hyegong, King Taejong and King Munmu became the permanent ancestral tablet(宗) for their great achievements(大功德) in conquering Baekje and Goguryeo. This follows the logic of Giving the name 'Jojong(祖宗)' to ancestors with great achievements in the Cheonja seven shrine system. And Jojong means common ancestor. The dispute of The title Taejong in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hinmun (692) was a conflict over the title

of Jojong The title Jojong was extended to King Munmu due to the reform of King Hyejong's reign. This perception continued into the reign of Aejang.

Hwang(皇) in Hwangjo(皇祖) and Hwanggo(皇考) means emperor and Imperial Family. This can be seen through two things. One is that king Xuandi(宣帝) of Han(漢) built a Hwanggomyo(皇考廟). The other is the discussion on the Jongmyo(廟議) in the first years of Shenlong of Tang(705). It can be said that the reforms were made to maintain the permanent memorial tablets of the two kings, who were common ancestors,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the memorial tablets of King Wonseong, who was the king's great-grandfather, and King Hyechung, who was the king's grandfather. In the end, through reform, the near-chin royal family called the lineage of Ingyeom(Hyechung) was established within the royal family called the lineage of King Wonseong.

keywords :

King Aejang, Five Royal Shrine System (五廟制), Cheonja Seven Shrines (天子七廟), Taejong (太宗), Hwangjo (皇祖), Hwanggo(皇考)

